

매튜 S. 하몬 박사,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제7장 : 그리스도, 본보기 - 빌립보서 2:5-11,

BiblicaleLearning.org, 테드 힐데브란트 저

, 저는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의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이번 강해는 일곱 번째 시간으로, “모범이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2:5-11)입니다.

빌립보서 연구 일곱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해의 제목은 “모범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 바울이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생활에 뿌리내린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2장 5절부터 11절에서 다룰 내용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편의상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나누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시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니라. 그는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본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사이의 관계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묘사된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과 사랑, 그리고 즐거움을 불러일으켜, 우리 삶을 그분처럼 살도록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식의 모방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그 모습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5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을 연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제 본보기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보기'라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보기'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따르고 추구하라고 권면하는 삶의 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강의 전반에 걸쳐 제가 이것을 소위 '그리스도 찬송가'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을 '그리스도 찬송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불렀던 노래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용어는 그저 사용하기 편리한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은 시라고 하기엔 다소 부족하지만, 고상한 산문, 즉 그리스 시나 히브리 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도 한층 높은 수준의 묘사를 보여주는 예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그리스도 찬송'이라고 부르겠지만, 이는 실제 기독교인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찬송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이 찬송가를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쓴 것을 빌려 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이 편지에 이 찬송가를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송가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사람이 쓴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삼고 "이것이 내가 믿고 생각하는 바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울이 쓴 것인지 다른 사람이 쓴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반박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점, 즉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진리였다는 점, 바울이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말을 해서 해명하거나 변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찬송은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우리는 세 가지 분명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곧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겸손히 종으로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2장 5절에서 소개된 '마음가짐' 또는 '사고방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풍성한 신학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 풍성한 신학이 우리에게 주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살도록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에 담긴 핵심적인 신학적 내용들을 강조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신학적 논문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비록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지만"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 용어를 들으면 '잠깐, 형상이라니? 혹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어는 내면의 실체가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히브리서 1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 언급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다고 말한 것은,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러한 현실들 사이에 어떤 더 미묘하고 뉘앙스 있는 차이를 구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6절에서 "비록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으나"라고 말할 때 그러한 생각이 도입되는 것을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뜻이지?"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어 분사의 작동 방식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리스어 분사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다양한 유형의 관계와 개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이를 양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것은 그렇다는 식이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한 자"로 번역하여 더 모호하고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흥미로운 견해인데, 그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으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니라"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하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시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으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니라”라고 번역하는 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양보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신의 형상을 한 존재라면 당연히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죠. 만약 인과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은 이유는 그분이 신의 형상이었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단과 정통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이러한 양보적인 생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분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그 구절의 나머지 부분, 다시 말해 그 절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여겨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기적으로 움켜쥐고 소유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리스와 로마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며 자랐고,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력과 능력을 이용하여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지위를 최대한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양보하는 관점이 이 경우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하나님과 동등함,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2장 3절에 나왔던 동사가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생각하다', '마음에 담다',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가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개념을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개념과 동일시합니다. 본문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번역된 단어입니다. ESV에서는 이 단어를 "붙잡아야 할 대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어 단어 하르파그모스(harpagmos)입니다. 어려운 점은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여기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고,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가장 적절한 번역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포착해야 할 단서, 즉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는 겁니다.

“당신은 착취당할 무언가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킹 제임스 성경은 아마도 유명하겠지만, 그것을 “강탈”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신생활번역 성경은 “붙잡을 무언가”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번역가들이 이 의미를 영어로 옮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붙잡아야 할 무언가’라는 표현이 아마도 이 의미를 잘 포착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개정 표준역(New Revised Standard)의 표현도 ‘이용해야 할 무언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할 무언가’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움켜쥐거나, 착취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모르거나 구할 수 없는 경우, 여러 영어 번역본을 참고하면 본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해석상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겨우 한 구절일 뿐입니다. 우리는 벌써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단어와 절을 꼼꼼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갈수록 좀 덜 복잡해지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이르러 바울은 ESV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특정한 그리스어 동사를 번역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혹시 ‘케노시스적 기독교론’이나 ‘케노시스’와 같은 표현을 들어보셨다면, 바로 이 용어가 거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ESV는 “스스로를 비우셨다”라고 번역했고, 다른 번역본들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학적, 해석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가 무언가를 포기하셨다고, 예를 들어 신적인 속성 중 일부를 포기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 절의 내용과도 잘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의미가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그리스어 원문을 깊이 파고들거나, 최소한 구절의 흐름이라도 따라간다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 의미를 설명하는 두 개의 구절을 더 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바울이 이 의미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은 무언가를 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비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를 내어주거나 포기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역설적이게도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무언가를 취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번역할 수 있듯이, 노예의 형체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둘로스' (doulos)는 하인이나 노예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말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이사야 53장에서 의도적으로 표현을 가져왔다고 확신합니다. 소위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의 구약적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 즉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형체'라는 단어는 6절에서 하나님의 형체를 묘사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6절에서 강조했듯이, 이는 외적인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종의 외형을 취했다는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고 말하며 이 생각을 더욱 확장합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서 매우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6-28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암시하거나 되풀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암시나 메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8절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온전한 인간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현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특정한 시점에 사람의 모양으로 지어진 종의 형상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의 형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충격적이고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 죽음에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에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며 상징이나 장신구로 여겼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는 사형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형 집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전기 의자 모양의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는 "오, 특이한 목걸이를 하고 계시네요. 저건 뭐죠?"라고 말할 거예요. "저건 전기 의자예요."

당신은 그 목걸이를 보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며 '도대체 왜 전기의자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너무 섬뜩하고 이상해 보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형은 예의 바른 사회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금기시되는 주제였습니다. 예의 바른 대화에서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들이 많았죠.

그것은 끔찍했고, 잔혹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신이자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의 십자가형을 기념하며 돌아다닌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에게는 처음에는 매우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너무나 완전하여 십자가에서의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형을 통한 죽음의 잔혹함, 육체의 반응, 그리고 결국 질식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고대 기록과 현대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며칠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육체적 고통을 결코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것이 최악의 상황조차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 지점, 곧 십자가 죽음에 이르신 그 지점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에서 우리는 겸손과 순종,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9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9절에는 중요한 연결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것 또한 이사야서의 표현을 차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종의 노래 서두에 그 종이 지극히 높이 높여졌다고 소개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것인데, 이사야 52장 13절에서는 종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바울은 사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여호와, 즉 신성한 이름, 신성한 언약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시겠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셨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V자형 패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V자형 패턴이지만,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 본문은 V자처럼 아래로 향하는 여정을 보여주지만, 최종 지점은 시작 지점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은 마치 체크 표시와 같습니다. 이제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이름이라는 개념을 모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타락 후 인류가 모여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동기를 밝힐 때, 그중 하나는 이름을 떨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동기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을 듯한 탑을 쌓아 이름을 떨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언약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일부로, 하나님은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원인 중 하나는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이름을 높이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름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전개되면서, 이름이라는 주제가 다시금 등장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됩니다. 이 언약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위대한 자들과 같은 이름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으로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순절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 때문에 흩어지기는커녕 다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보좌 주위에 모여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더 큰 성경적 신학적 맥락의 일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전체적인 범위를 살펴보십시오. 10절에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창조물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이고 보편적인 통치를 정당한 왕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아니, 그는 참된 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모든 혀가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이 구절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기쁘게 고백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실 날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때에는 누구도 그분이 우주의 위대한 왕이심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가 진정한 왕임을 기쁘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적들은 심판이 임했음을 깨닫고 공포에 떨며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그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구약적 배경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몇 차례 언급했지만,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과 가장 유사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 45장 22절과 23절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하리라”라고 하는 구절은 이사야 45장 22절과 23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사야 45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지 않으면 이 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나만이 참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으며, 모든 이는 내 앞에 엎드려 내가 참 하나님임을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지적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구약의 여호와께 해당하는 어떤 사실이 신약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결론을 도출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여호와께만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도 해당된다면, 그리스도는 여호와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신학적 계산법이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흔한 방법 중 하나죠. 이 방법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요.

제 말은, 직접적인 언급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오직 여호와께만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여호와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저는 그런 논리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구절에 대한 몇 가지 잠재적인 암시를 보여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연구 역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1세기 말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이 전체적인 맥락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여호와께만 해당하는 말씀을 그리스도께도 적용한다고 말하는 이 구절의 의도를 이해하신다면, 이 구절은 적어도 이 시점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가장 비판적인 학자들조차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심지어 가장 비판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서기 60년에서 62년경에 이 글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자들 중 상당수는 바울이 다른 사람의 찬송가를 빌려 쓴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것이 당시 받아들여지던 믿음이었다는 것을 제시할 뿐입니다. 적어도 50년대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1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나타난 후대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네,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것들은 구약 성경과 특정한 유사점을 가진 단어, 구절 또는 개념들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게 될 것 중 하나는 이 본문에서 이사야서가 많이 등장하고, 창세기도 상당 부분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아담 사이에 유사점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한 부분에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더 두드러지는 주제는 이사야서의 종의 시편에서 언어를 차용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비운다는 식의 표현이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헛된 영광이라는 개념을 경고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와 대조되는, 자신을 높이려는 인간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1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고, 그 결과 참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피해야 할 허영의 반대 개념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상,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 사용한 표현들이 모두 이사야 53장의 구절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신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표현인데, 빌립보서 3장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한다는 표현은 이사야 45장의 표현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을 너무 빨리 끝낸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 찬송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찬송은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이러한 성찰을 담아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희미하게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암시와 단서들을 탐구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11절에 나타난 그림에 더욱 풍성함과 깊이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자, 잠시 뒤로 물러나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적용해 봅시다. 이 구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시도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시도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셨고,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스스로를 뛰어넘으셨으며, 자신을 낮추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고, 가장 높은 이름으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은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놀랍고도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적용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목적은 단순히 지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살도록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결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영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특권을 섬기는 데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고대인들은 지도력이나 특권 및 권력의 위치에 대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사람들이 특권과 권력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상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대 세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이라는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동기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무릎 꿇음이 왕이 계시다는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찬 축하일지, 아니면 곧 닥칠 심판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일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느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이나 배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일반화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속한 많은 환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특히 70년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재림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지상의 삶이 편안해질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상황이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때,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오늘일까? 지금일까? 이번 주일까?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오실까?' 라는 기대와 간절함, 그리고 그 소망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기희생적 봉사 활동 하나를 생각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의도적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희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한 가지 일에 전념하려고 생각했던 자원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풍성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단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의 궁극적인 소망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사랑과 애정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기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묘사에서 어떤 결론, 즉 '그러므로'라는 질문을 던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의 일곱 번째 시간,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 5-11절, '모범이신 그리스도'입니다.